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진, 발전기금 기부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공공인재학부 교수 일동이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써달라며 7,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29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기부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대학 경쟁력 향상 기금으로 지정돼 글로벌융합대학 공공인재학부가 지향하는 지역의 전문 직업 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조성에 쓰일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융합대학 허강무 학장과 공공인재학부 정태종 학부장, 공공인재학부 강문경 교수는 공공인재학부 설립 15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학부의 장기적 발전과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 기부금을 조성했다. /장은성 기자



'2023 고창농촌개발대학 수료식' 개최

고창군은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리더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농촌개발대학 수료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박병열 학생회장을 비롯한 수료생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영상앨범 시청, 수료증 수여 및 분야별 상장 시상, 내빈 축사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고창농촌개발대학은 1년 100시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설문조사를 통해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학과를 선정해 왔다. 올해에는 △약용작물과 △치유자원과 △시설원예과 △복분자와 등 4개 과정으로 운영 전문강사의 이론 및 현장교육, 컨설팅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농업 리더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농기센터, 올 생활자원분야 사업 평가회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8일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농업인과 가공창업 교육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자원분야 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회에서는 2023년 생활자원 농식품 가공분야 8개 사업과 농작업과 체험분야 3개 사업에 대해 추진결과와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사업 우수사례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사업인증 받은 '허우소', 지역 전통 막걸리를 활용해 체험까지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유)한국술도가', 유기농 포도를 소재로 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 '진미농원'이 발표했다.

또 농식품 수출·해외마케팅 전문가인 (주)망고컴 백정훈 대표이사의 농식품 상품기획과 판매전략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백산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김제시 백산면(면장 최미화)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8일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관내 기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연말을 맞아 기업체, 유관기관 등 타시군 거주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알려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 거리 홍보 활동으로 제도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8일 관내 기업체 3곳을 초청해 진행된 제도 홍보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평선산단 거리 홍보 캠페인 등 열린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다음 달 8일까지 농협, 학교, 우체국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제=곽태 기자

활력 넘치는 농촌 만들기 앞장

정성주 김제시장,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수상

정성주 김제시장이 29일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농협중앙회가 농업인구 증대와 농업의 존립 기반 강화를 위해 힘쓰고 귀농인과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적극 펼친 자치단체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전국 총 8개 자치단체장(전북 김제시,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정선군, 충북 증평군, 충남 예산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예천군, 경남 산청군)이 선도인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자 선정 심사에서 김제시는 귀농귀촌인에게 단계별 맞춤 이론과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선도농가와 교육생을 매칭해 영농기술을 지원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준비중인 도시민을 위한 시설인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12월 준공 예정)'과 귀농인의 집(5개소) 등 임시 거주시설을 운영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 정착을 이끌어 농촌의 활력 증진에 힘쓰는 점도 평가절수에 크게 반영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수상 소감에서 "청년이 농촌에 뿌리를 내려야 내일의 희망도 커진다고 생각한다"며 "농업 전문화와 균형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이 필요하며 나아가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



또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귀농귀촌인 유치는 지속발전 가능한 김제를 만들어 가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도시민을 겨냥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2022년 539가구 647명, 2023년 9월 말 기준 517가구 751명으로 귀농귀촌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청년 농업인 900여명을 육성해 인구소멸 위기 타개를 위한 사업발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곽태 기자

'제18회 남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성료

UN 지정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앞두고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자긍심 고취 도모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9일 남원시청 강당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제18회 남원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 시민 등이 참석, 유엔(UN)이 제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였다.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남원시장 상, 시의회의장 상, 국회의원 상, 교육감 상,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상 등 자원봉사 유공 단체와 봉사자 36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었다.

한편 이은주 시민소통실장은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실천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며, 지역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서정에너지 서원필 대표, 진안 정천면 수급자 부부에 병원비 후원

(주)서정에너지 서원필 대표(60)는 지난 17일 진안군 정천면 원원필마을의 수급 가정에 병원비를 후원해 겨울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서 대표는 정천면의 한 수급자 부부(78세, 73세)가 고령과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접하고 흔쾌히 병원비를 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 대표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병원비를 결제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개월의 요양병원 비용도 미리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사용할 기저귀 등 필요한 물품까지 지원하면서 노부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돼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서 대표는 "우리 부모님 예전에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생각으로 치료와 요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그만 정성을 보냈을 뿐이다"며 "내가 태어난 곳은 김제이지만 진안은 제2의 고향과도 같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원필 대표와 부인 문미경씨 부부는 2021년부터 매년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마령면에 취약계층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는 등 남다른 진안사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김제가 고향임에도 진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도 기탁해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자보센터, 화장실 낙상사고 예방 안전바 설치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는 무주읍 후도마 및 읍내 20가구에 자율방범대(대장 선준경)원들과 함께 화장실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바 및 미끄럼매트를 설치 완료했다.

시군별 찾아가는 재능나눔 지원사업으로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가 주최해 진행됐으며 노령인구 및 거동이 불편한 홀어르신들이 증가하면서 화장실내 미끄럼 낙상으로 인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가 각가정을 방문해 안전바 및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 안전하고 안심 할 수 있는 안전한 무주가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기부를 실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소방서, 하트세이버 인증서·배지 수여식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29일 본서 2층 소방서감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한 평가·처치·이송으로 살려낸 현장대원 3명을 대상으로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지인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변암119지역대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환자를 발견하자마자 신속하게 환자와 접촉해 초기리듬과 심실세동을 확인하고 즉시 자동심장충격기와 인공호흡기 등을 활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환자를 회복시켜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당시 출동한 박춘섭 소방장·황인성 소방장·양현식 소방장 3명에 대해 본서 2층 소방서감실에서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2023 고창군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고창지역 체육의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2023 고창군 체육인의 밤' 행사가 고창군체육회(회장 오철환)주관으로 지난 28일 저녁 르네상스웨딩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심덕섭 군수를 비롯해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관내 유관기관장과 체육회 임원, 읍면체육회장, 종목별회장 등 300여명의 체육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식전행사, 유공자 수상, 축사, 영상시청 등으로 진행됐다.

수상은 고창군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체육인에게 고창군수 표창, 고창군의회회장 표창, 전북도지사 표창 등 6개 부문으로 개인 24명이 수상했다.

오철환 체육회장은 "올해 각 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여러 대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오늘 체육인의 밤 행사로 모든 체육인들이 서로 화합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 대회를 개최하며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신 체육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내년에도 고창군 체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체육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대 김진욱 연구원, 응용공중학회 '최우수'

전북대학교 공중계통진화연구실의 김진욱 연구원(사진, 지도교수 김소라)이 최근 열린 '2023년 한국응용공중학회 추계학술발표회' 포스터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김진욱 연구원은 '환경위해종 대벌레(Ramulius mikado)의 유전적 다양성 연구'를 주제로 분자실험을 통해 종 구분을 위한 분자마커 선정과 하플로타입 분석을 통한 지역별 유전적 변이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는 최근 몇 년간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한 환경위해종인 대벌레에 대한 유전적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 변이를 확인함으로써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돌발해충 방제에 대한 분자 데이터 사용 방안과 국내 이동 경로 및 그 확산을 유추한 것이다.

김진욱 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해충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방제에 기여하기 위해 김소라 지도교수님과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며 "연구에 더욱 정진해 해충 방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김제 금상중 이연희, 매스아트전 금상 수상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김제 금상중학교 이연희(3년) 학생이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주최한 제5회 매스아트전 전국대회 학생부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매스아트전은 전국 대회로, 수학체험 콘텐츠나 수학을 예술로 표현한 작품을 공모한 것이다.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 개최됐다.

이에 이연희 학생은 펜로즈 타일과 스트링아트를 융합한 수학작품을 만들었다.

'스트링 매스 아트와 펜로즈 타일' 작품은 두 마름모의 길이는 같고, 큰 마름모의 각은 120도·60도, 작은 마름모의 각은 150도·30도이며, 두 마름모의 조합과 다양한 기법으로 스트링을 해 직선이 곡선으로 바뀌는 아름다움과 스트링 실의 엮기로 원리가 만들어지고, 전체적으로 어우러짐을 통해 수학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연희 학생은 "선생님들의 협조와 응원으로 매스아트전에 참가할 수 있었다"면서 "꾸준히 작품을 만들면서 수학적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스스로도 행복함과 성취감을 많이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